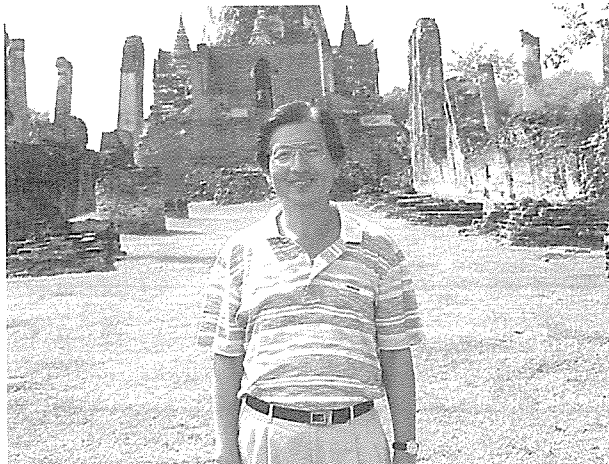


# 제17차 아시아·태평양잡초학회 학술회의

● 일시 : 1999년 11월 22~27일

● 장소 : 태국 방콕

지난해 11월 태국에서는 제17차 아시아·태평양 잡초학회 학술회의가 ‘잡초와 환경영향’이라는 주제로 5백여명의 과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에서도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필자는 ‘고추품종의 Bentazon 내성’ 논문을 발표했고 잡초의 방제 및 관리 발표장에서는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1백28편의 논문과 79편의 포스터도 발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卞鍾英(충남대 식물자원학부교수)

태국잡초학회 주관으로 제17차 아시아·태평양잡초학회 학술회의(17th Conference of Asian-Pacific Weed Science Society)가 ‘잡초와 환경 영향’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태국 방콕시 Central Grand Plaza Hotel에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외국회원은 일본에서 1백여명이 참석하여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도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그 이외에 미국, 호주, 중

국, 뉴질랜드, 유럽,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많은 회원이 참가하였다.

필자는 한국과학재단과 충남대학교의 지원으로 본 학술행사에 참가하여 고추품종의 Bentazon내성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

하였고, 잡초의 방제 및 관리 발표장에서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의를 진행시켰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잡초학회 집행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차기 개최국 결정 등 제반업무 협의에 참여하였다.

## 한국과학자 30여명 참가

아시아·태평양잡초학회는 1967년 하와이에서 창립되어 처음 학술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 2년마다 개최국을 돌



학회 발표장에서 일본 쓰쿠바 대학교수 팀과 함께 <좌로부터 이시츄카 명예교수(전 아시아·태평양잡초학회장), 필자, 우쓰이교수, 신이성교수>

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회원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 이외에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회원이 참석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큰 학술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한국잡초학회 주관으로 1989년에 제12차 학술대회를 유치하여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Suwanketikom 회장과 Dalodom 태국 농림부장관의 환영사에 이어 농업개발청장의 '2000년대의 잡초방제기술'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오후에는 일본 농림성 농업환경연구소 연구조정국장인 Harada박사의 특강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2000년대의 잡초과학'에서 생태계에서 제초제 잔류 및 위험성 평가, 형질 전환 저항성작물의 위험성 평가, 지속적인 잡초관리수단으로서 상호대립 억제물질(allelopathy) 이용, 외래잡초의 전파 방지, 잡초의 이용 및 아시아·태

평양지역에서 잡초목록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의 Zimdahl교수의 특강 '농업과 잡초학의 윤리(ethics)'에서는 농업의 절대적 가치, 지속적 농업의 달성, 생산자의 이윤추구, 농학자와 잡초학자의 신념에 대한 윤리적 가치의 정당성이 연구와 교육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논문 1백28, 포스터 79편 발표

총 1백28편의 발표논문중에는 잡초 방제 및 관리 분야에서 5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각국에서 벼, 콩, 옥수수, 밀, 땅콩, 고무나무 등 작물재배에서 제초제 사용, 기계적 방법, 생태적 방법에 의한 잡초방제법에 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다음으로 잡초의 생리 및 생태 분야 논문 27편이 발표되었는데, 여러 문제잡초의 생태적 특성과 경합에 관한 논문을 통하여 효율적인 잡초방제법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새로 개발된 제초

제 13편이 발표되었는데, 벼에서는 일 반제초제로 개발된 화분과잡초 방제용 CGA 279233와 경엽처리제 BAS6251H, 이외에 Clomazon + propanil, Oxadiargyl 등이 소개되었다. 옥수수, 화곡류작물과 감자에서는 Flufencet, 콩에서는 Clomazon, Sulfentrazone, Imazamox, 파인에 플에서는 Sulfentrazone, 그리고 골프장 잔디에서는 Flazasulfuron 등이 새로운 제초제로 소개되었다. 제초제 저항성은 11편이 발표되어 각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저항성에 대하여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고 관심이 매우 높았다. 특히 최근에 저약량 고효성 제초제로 개발된 Sulfonylurea계의 저항성잡초 출현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잡초방제상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선택성 제초제인 Glyphosate 저항성 잡초의 출현도 새롭게 부각되었다. 그 이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6편이 발표되어 제초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기계적

방법, 생태적 방법을 병행한 종합적 방제법이 강조되었고, 생물학적 잡초 방제법도 6편 발표되어 환경친화적 잡초방제법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살포 기술 5편, 제초제의 행동 및 작용기작 4편이 발표되었다.

한편, 포스터(poster) 발표는 총 79편으로, 잡초방제 및 관리 분야에서 33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잡초의 생리 및 생태 26편, 제초제의 생리 생화학, 살포기술 및 신 제초제 개발 분야 16편, 그리고 토양에서 제초제의 행동 및 환경영향이 4편, 기타 11편이 발표되었다. 포스터 발표시간에는 각 발표자가 방문회원의 질문에 답하며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진지하게 연구 방법, 결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 그리고 공동연구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농약 회사에서는 준비된 각 부스(booth)에 각 회사의 새로운 제품과 자료를 진열하여 소개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개발 가능성에 관한 토의도 있었다.

그리고 '잡초의 이용'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11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토양보존, 공해제거, 잡초의 상호대립억제물질(Allelopathy) 이용(6편), 그리고 월남과 태국에서 잡초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으며, 매우 심도있게 토론이 이루어졌고, 또한 잡초의 자원 활용화 방안의 관심도가 높았다.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된 주제는 금잔디, 헤어리 베찌, 미모사류 등에서 잡초의 생육을 억제하는 상호대립억제물질을 추출하거나 멀칭(mulching)을 하여 잡초방제의 가능

성을 검토한 것과 벼의 품종에서도 잡초의 생육을 억제하는 품종이 있음을 보고한 내용은 아직은 실용성이 없지만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아시아·태평양잡초학회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서는 2001년 개최지로 중국의 북경, 2003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다행스럽게 여러 나라에서 학술대회 유치에 희망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이채로웠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잡초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관하여 진지한 토의가 있었으며, SCI 잡지가 되기 위하여 1년에 4회 발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재정, 편집 등 제반 문제를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 2001년엔 중국서 개최

학회기간 중 하루는 현지견학 프로그램(field trip)이 있었는데, 제1코스는 태국왕궁, 에메랄드 불교사원 및 방콕 시내 여행, 제2코스는 Damnoen 수상시장 및 Nakorn Pathom 지역 방문, 제3코스는 옛 수도였던 아유타야(Ayuthaya) 고적지 방문, 그리고 제4코스는 악어농장 방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미 태국을 몇 차례 방문하였지만 방문기회가 없었던 제3코스 아유타야를 택하였다. 아유타야는 방콕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버마의 침공을 받기 전까지 1400년대에서 1600년대에 걸쳐 태국 역사상 두번째 수도였다. 아유타야는 외부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전체가 수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옛 왕궁터를 비롯한 많은 불교사원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거나 유적지만

남아 있는 곳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World heritage)으로 지정하여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었다. 한편 태국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4계절 관광을 즐길 여건이 마련되어 태국경제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학회기간 동안에도 12월5일 태국국왕의 72주년 생일 축하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거리와 주요 공공건물에 국왕의 초상화와 많은 현수막이 미리 걸려 있었고 행사준비가 곳곳에서 한창임을 목격하였고, 태국 국민이 국왕을 존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회 개최기간 중 저녁에는 주최측 또는 농약회사에서 파티를 주선하여 태국의 음식, 민속음악과 춤을 관람하고 많은 회원과 우의를 나눌 수 있었고, 여러 대화 중에서 한국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다.

그리고 학회 개최 직전 행사로 주최측이 주관한 골프대회에서는 1백20여 명이 참가하여 열대지방의 잔디를 밟으며 여독을 풀며 경기를 즐겼으며, 한국에서도 필자를 비롯한 6명이 참가하여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외국회원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매우 기억되는 행사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 나라에서 잡초방제 분야의 전문인이 격년으로 만나서 상호 관심사, 각국의 문제점, 연구동향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축제로서 큰 의미가 있었고, 더욱 알차고 내용있는 학술대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㉞